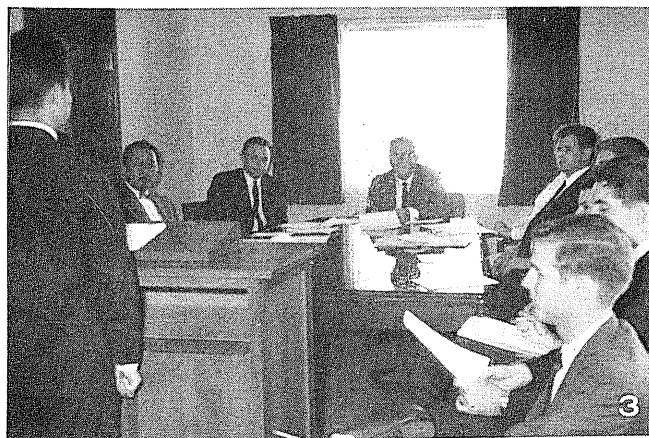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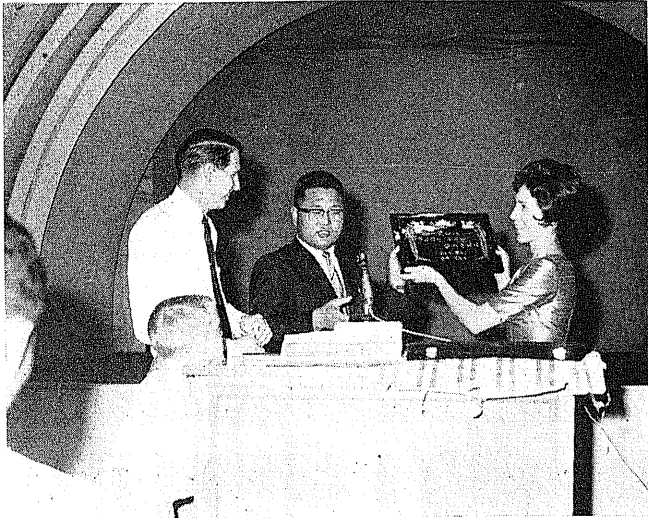


벤슨 사도 방한

사진설명 ① 8월 11일 오후 7시 30분 공항에서 선교부장님(전 열 중간)의 소개로 회원들의 인사를 받는 벤슨 사도님(좌) ② 12일 오전 7시 인쇄소로부터 급히 전달된 교리와 성약이 선교부장님에 의해서 대판장님과 벤슨 사도님에게 전달되었다. 번역자 정대판 형제(좌로부터 두번째)와 번역기구 한국 지부장 한 인상 형제. ③ 한 인상 형제에 의해서 번역과 도서 출판에 대한 설명을 받으셨다. ④ 관계된 역원으로부터 한국에 관한 것을 들으시고 질문과 지시를 하는 벤슨 사도님. ⑤ 10시 30분 서부지부의 이모저모를 둘러 보시는 사도님. ⑥ 서부, 영등포와 녹번지부장단의 환영을 받으셨다. ⑦ 환담하시면서 10월 이후 가급적 빨리 한국성도들과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⑧ 너무 높아 보이질 않는 환영 현수막 아래서의 기념촬영. 오후 4시 30분 다음 방문지인 일본을 향해 출발하셨다. 사도님은 8월 4일 69회생신을 보내셨다.

스로버 3대 선교부장 착임

윗줄 좌로부터 우로 ① 지난 8월 1일 한국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도착한 스로버 부장 가족. ② 신구 선교부장님은 옛날 한국에서 구면이었다. ③ 오후 6시 30분 선교부 강당에서 말씀하시는 선교부장. 경건 없는 신앙 생활은 나침판 없는 항해라고 말씀했다. ④ 선교사들의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의 합창 환영을 받는 선교부장 가족. ⑤ 8월 2일 번역실에서 번역기구의 설명을 받으셨다. 그는 특히 성도의 벗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으셨으며 대외 서점 판매를 지시하셨다. ⑥ 8월 1일 환영 집회가 끝난 후 배일문 선교부장님의 소개로 회원들의 인사를 일일이 받았다. ⑦ 선교부의 이모저모를 설명 받은 슬로버 선교부장. ⑧ 선교부장 가족. 좌로부터 쥘디, 선교부장, 디모디, 스로버 자매. 큰 아들은 사진에서 제외되었다. 그는 광주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



녹번지역 지부로 승격

지난 7월 14일 녹번지역이 지부로 승격되었다. 서부지부에서 분리되어 4월 22일부터 집회를 가졌던 녹번지역은 개척초부터 의욕적인 활동들을 쉬지않고 하여서 다른 지부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던 열성 회원들로 모인 지부로서 이제 남은 것을 집회소를 따로 갖는 것 뿐이라고 회원들은 서로를 다짐하고 있다.

지부로 승격된 녹번지역의 지부장으로는 김 복경 형제, 그의 제1보좌에 김 과영 형제, 제2보좌에 이 인선 장로, 서기에 김 조수 형제가 각각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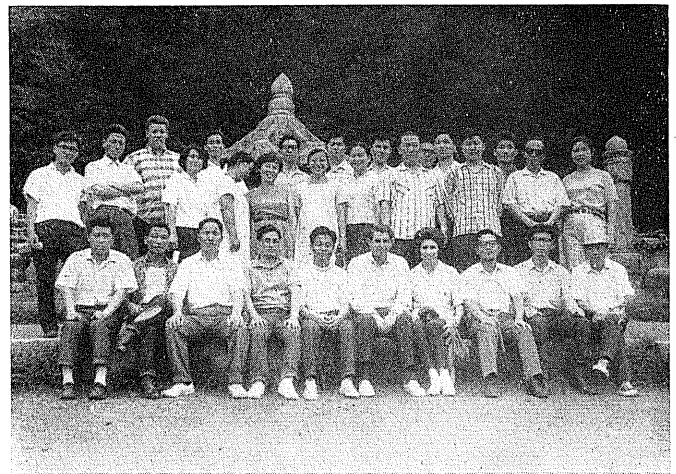
배 일문 선교부장 귀국

제2대 한국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던 스펜서 제이. 팔머 박사가 지난 8월 4일 오후 많은 한국 성도와 신임 선교부장 서 현보 박사 내외의 환송을 받으며 귀국 길에 올랐다. 그는 1965년 8월 5일 가족과(팔머자매, 드와이트, 제넷트, 제임스). 함께 한국에 와서 만 3년간을 봉사하는 동안 말일에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곳이고 지체않고 출발하는 열의 가운데 3년을 보냈었다.

그는 비행장에서 있었던 단간한 모임에서 「하나님 사업에 열심이셨고 우리 가족에게 친절을 주셨던 여러분에게 오직 주안에서 평안 하십시오라는 말 외에는 전할 수가 없다」면서 그간에 쌓은 정을 아쉬워 했었다.

한편 그의 떠남을 아쉬워 했던 성도들은 지방부별로 송별모임을 준비했었는데 7월 7일 오후 7시부터는 남부 지방부 주최의 송별모임을 동구지부에서 노변의 모임으로 만들어 그의 노고를 위로했으며 중앙 지방부에서는 7월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선교부 강당에서 송별 모임을 준비 했었다. 그의 미국 주소는 아래와 같다.

Dr. S. J. Palmer
860 West 2000 North, Provo, Utah
U.S.A.



중앙 지방부 장로 정원회 피크닉

지난 7월 17일 중앙 지방부 장로 정원회는 부부동반의 피크닉을 가졌다. 배 일문 선교부장의 송별회도 겸했던 이날의 피크닉은 오전에 비가 내려서 참석한 사람이 적었으나 시민회관을 출발한 10시부터는 쾌청한 날씨여서 목적지인 광능을 지나 경춘 가두의 등산폭포까지 다녀 왔다고,



부산지부 예배당 기공식

오랫동안 바라던 부산지부 예배당의 기공식이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부산지부 건축 현장에서 있었다. 배 일문 선교부장과 건축 선교사 루스 장로의 참관하에 엠티 위에서 있었던 동식전에서 배 일문 선교부장은 이 건물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것이라면서 서로의 봉사 다짐했었다.

사진 상 : 완성될 건물의 입구에서 시추하는 선교부장과 남부 지방부장.

하 : 말씀하는 건축 선교사 루스 장로.

우 : 격려하는 선교부장



B.Y.U. 연예단 방한

교회 재단의 B.Y.U. 학생들로 구성된 연예단이 한국 주둔 유엔군을 위문하기 위해서 약 1개월의 예정으로 7월 9일 한국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7월 11일 선교부에서 한국 성도들을 위한 공연을 베풀었는데 노래, 만담, 무용으로 이루어진 이 순서를 감상한 성도들은 「너무너무 재미 있었다」는 말을 연발하였다.

끝 순서였던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의 합창은 펍 인상적이었다고 한 마디씩.

사진 : 공연중인 연예단의 한 장면



선교사 합창단 광복절 방송 축전에 출연

서울 지역의 선교사 합창단은 지난 8월 15일 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서울 중앙 방송국 주최의 광복절 방송 축전 합창 순서에 두 차례에 걸쳐 출연 하였다. 3일간의 연습으로 한국 민요 「한 오백년」 등을 부른 물론 외국인 선교사들의 솜씨는 방청객들로 하여금 놀람을 금치 못하게 했었다.

